

## 두산생물자원(주)

### 두산생물자원(주)와 중앙대학교 연구개발 MOU 체결

두산생물자원(주)과 중앙대학교는 5월 18일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본관 3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산·학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두산생물자원(주) 박근호 대표이사와 중앙대 안국신 총장이 연구협력 협약서에 서명한 후 상호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과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 전공)와 기술자문, 공동문헌조사, 현장 공동연구를 통한 자문 등 동물자원분야와의 교류, 동물 사료개발을 위한 농식품 및 천연물에서 유래되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고 이를 기술화 및 제품화 하기위한 소재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두산생물자원(주)에 한국사료협회 조남조 회장 내방

한국사료협회 임원(조남조 회장 & 문홍식 연구소장)은 최근 곡물가 급등 및 구제역, AI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0일 회원사인 두산생물자원(주)를 방문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협회 임원들은 원재료비 급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고충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축산업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협회 및 회원사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축산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 두산생물자원(주) '행복나눔 캠페인'

두산생물자원(주) 사회봉사팀 '안다미로'는 복지기관의 아이들과 함께 잠실구장을 방문하여 야구관람을 함께하며 문화활동을 하였다. 행복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당사에서 매월 주관하는 봉사활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직접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 당사로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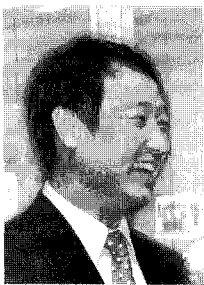
두산생물자원(주) 임직원들은 아이들의 올바른 자립과 성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천하제일사료

사료효율증대와 모든 영양관리로 승부

- 창립 50주년 기념 양돈세미나로 전문성 대폭강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김성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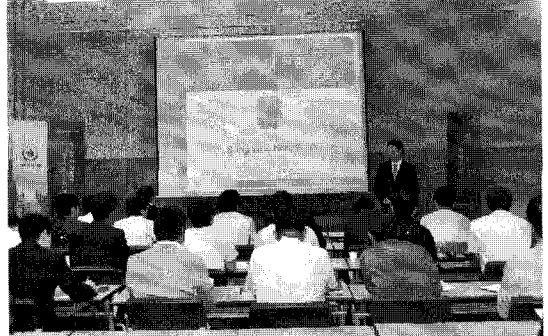
천하제일사료(대표 윤하운)는 지난 5월 20일 대전 중앙연구소에서 지역부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돈세미나를 열었다. 오는 2012년에 창사 50주년을 맞는 천하제일사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기념행사들을 1년 동안 특별 이벤트로 개최할

예정되어 있어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세계적인 양돈 영양학자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김성우 교수를 초청하여 최근 핫이슈인 '양돈산업현황과 전망' 및 '올바른 모든 사양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날 김성우 교수는 미국 현지의 양돈산업 현황에 대해 생생하게 소개했다. 현재 미국의 양돈산업은 기업화가 심화되고, 대형농장의 인수통합에 따른 대형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풍부한 사료자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고곡물가에 따른 사료비 상승으로 양돈장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양돈사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가루사료를 선호하던 미국 최대 양돈기업인 S사조차도 옥수수를 아주 작은 입자로 분쇄하고 밀이나 주정박(DDGS)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모든 사료를 펠렛으로 가공하여 급여함으로써 사료효율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



김성우 교수의 강의장면

상되어서 국내 축산업계도 이런 현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며, 양돈 농장에서의 수익성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료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대체원료 개발을 통한 사료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성우 교수는 "사료 효율 개선은 물론이고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 출발점으로 모든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술에 맞는 양돈영양의 방향을 알면 앞으로 입식을 시작할 농가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모든관리를 위해서는 단계별 영양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0주년 기념세미나를 총괄하는 이기웅 전무는 "천하제일이 향후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인력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창립 50년을 맞는 천하제일사료가 고객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도 밝혔다.

지난 50년간 한국 축산발전의 중심에 서서 성장해 온 천하제일사료가 창사 50주년을 계기로 더욱 새롭게 변신하여, 한국축산의 생산성을 글로벌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50년의 행보가 기대된다.

##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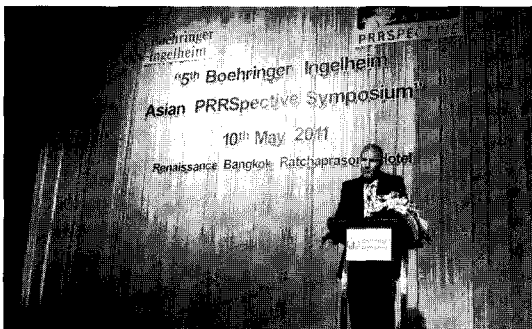
### 제5회 아시아 PRRSpective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최신 지견 공유 및 토론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대표이사 군터 라인케, www.bivkorea.com)은 지난 5월 10일, 태국 방콕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아시아 PRRSpective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아시아 PRRSpective 심포지엄에는 개최지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 9개국의 주요 양돈 관련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도 14명의 PRRS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내 사례를 공유하였다.

크게 1, 2부로 나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PRRS의 과학적 연구와 PRRS 컨트롤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최신 지견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요즘 중국 등 동남아에서 창궐하고 있는 고병원성 PRRS(HP-PRRS)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2부에서 'PRRS 바이러스 순환의 최소화'를 주제로 강의한 톰 질레스피 박사(Dr. Tom Gillespie)는 미국에서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PRRS 컨트롤 매뉴얼을 소개하고, 개별 농장 컨트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컨트롤'의 개념을 소개하여, 실용적·효율적 PRRS 관리 방안에 유익한 팁을 제공하였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양돈 마케팅 총괄 제럴드 베렌 박사(Dr. Gerald Behrens)는 "매년 성공적으로 아시아 지역 PRRS 연구 및 사례를 공유하는 PRRSpective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



품(주)은 앞으로도 PRRS를 포함한 다양한 양돈 질병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는 여전히 양돈 산업에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2차 병원체와의 복합감염을 통해 농장에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여 생산성 감소를 가져온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은 국내 유일의 생독 백신인 인겔백® PRRS 생독 백신을 통해 PRRS 컨트롤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그에 따른 결과물을 내어 놓고 있으며,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시간에 농장의 PRRS를 안정화할 수 있는 면역적인 관리 도구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문의 : 02-709-0195]

**(주)CJ사료**

**CJ사료가 새벽을 깨우(牛)리로드!**

- 우시장 등 현장 위주의 Boosting 1,2,3 캠페인 실행
- 신제품 한우대감(韓牛大甘), 한우공감(韓牛共甘)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듬 깔린 새벽녘 우시장, 정적을 깨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열혈 CJ맨들이다. 현재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부문장 이병하)는 전국적으로 우시장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차별화된 신제품 홍보는 물론 고객의 소리까지 세심하게 귀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장성, 정읍, 나주, 서산, 청양, 음성, 청도 등지에서 우시장 판촉을 진행한 CJ사료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CJ사료 홍보부스에서는 음료제공과 함께 신제품 샘플을 증정하고 있으며 현장 제품주문도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6월 16일에는 청도군 동곡우시장에서는 CJ사료 동부사업부 영업조직원들이 집단판촉을 벌였다. 청도지역 담당인 이철우 지구부장은 “홍보부스에 많은 고객들이 몰려와 CJ사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며 “우시장 판촉과 같은 고객 접점의 행사를 자주 실행하여 CJ사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남기돈 축우PM은 “FMD 이후 한우시장이 다시 개장됐지만 한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만 있다”며 “CJ사료는 현 한우사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심도있게 고민하였고 그 결론은 바로 한우대감(韓牛大甘), 한우공감(韓牛共甘)이라며 자신있게 추천했다. 저가사료 선호현상에 따른 고급육 출현율 감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잘 먹고 잘 커야 하는 비육사료의 특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브랜드명의 감(甘)자는 ‘달다’는 의미의 달감(甘)자로 이름을 지었다. 우리 정서에 맞게 재미있게 표현한 브랜드 네이밍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특허받은 신기술인 MSC공법, 세계적인 연구소인 SFR 배합설계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호성 개선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최고의 기술이 탑재됐다. 프리미엄급 사료인 한우대감은 생후 30개월 756kg 출하, 1++등급 30% 이상, 1+등급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우공감은 생후 30개월령 730kg 출하, 1++등급 20% 이상, 1+등급 70% 이상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CJ사료는 5월부터 실시한 Boosting 1, 2, 3캠페인을 기점으로 활발한 현장활동으로 한우대감, 한우공감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남 PM은 덧붙였다. ☺



좌측부터 우시장 판촉중인 CJ제일제당 사료 중부사업부, 서부사업부, 동부사업부